41. 콘서트형 오페라 향연 `가성비 甲`

오페라는 공연 애호가가 누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사치라는 말이 있다. 객석에 앉아 100명 남짓한 가수들의 압도적인 육성과 화려한 의상, 웅장한 세트 그리고 무대 밑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관현악 선율을 감상하고 있자면 이 같은 표현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최고의 사치는 그에 비례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 오페라 한 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제작비가 든다. 티켓 가격은 자연히 오른다. 값비싼 가격 부담으로 일반 관객은 종종 오페라와 멀어지고, 제작사는 높은 비용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기가 검증된 소수 작품에만 집중하게 되는 게 '오페라 불모지'에 가까운 한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유용하게 쓰이곤 하는 게 콘서트 오페라, 즉 오페라 본고장 이탈리아 말로 '오페라 콘체르탄테'다. 세트나 소품, 의상을 배제한 채 무대 위 오케스트라 연주를 배경으로 성악가들이 오페라 전곡을 콘서트처럼 부르는 형태다.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무대장치가 생략되고 리허설 기간이 압도적으로 단축되면서 제작비가 3분의 1 이상 줄어들 뿐 아니라 음악 본연의 매력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여름 한국에서도 굵직한 오페라 콘체르탄테 기대작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팬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박영민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30일 오페라 콘체르탄테로 선보일 바그너의 '탄호이저'가 대표적이다. 박 지휘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오페라는 그간 무대장치와 의상 등에 치우쳐 음악적 비중이 축소된 경향이 있다"며 "섬세한 관현악 기법이 총동원된 바그너의 명작을 콘서트 형식으로 올려 작곡가의 의도를 살리고 진화된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중세 기사 탄호이저가 사랑과 쾌락 사이를 오가며 겪는 갈등과 구원의 과정을 그리는 이 작품은 길고 난해한 경향의 바그너 작품 중 초심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꼽히며 장엄하고도 감미로운 음악으로 매우 유명하다. 연출을 맡은 이의주 씨는 "극 흐름에 따른 음악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 조명과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02)580-1300

클래식 공연기획사 아트앤아티스트가 오는 8월 19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 중인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겁벌' 역시 기대작이다. 지난해 5월 세계적 명성의 독일 베를린 도이체 오퍼 극장이 제작한 오페라 '파우스트의 겁벌'에서 주역 파우스트 박사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역으로 각각 분한 한국인 스타 성악가 강요셉과 사무엘 윤이 이번 오페라 콘체르탄테 무대를 위해 다시 뭉칠 예정이라는 소식은 티켓이 오픈되기 몇 달 전부터 오페라 팬들을 술렁이게 했다. 김정호 아트앤아티스트 대표는 "콘서트 오페라에선 오케스트라가 피트 안이 아닌 무대 위에서 존재감을 발하기 때문에 음악의 힘이 몹시 중요하다. 베를리오즈가 애초에 콘서트 형식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썼다는 점에서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1999년 오페라로 국내 초연된 이래 한 번도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공연은 8월 19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070)8879-8485  
  
일반 오페라보다 제작비를 대폭 줄이고도 작품 본연의 맛과 멋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오페라 콘체르탄테는 분명 가성비 면에서 으뜸인 공연 형태다. 국내 민간 오페라단의 오페라 작품을 R석으로 보기 위해 평균 30만원이 넘는 티켓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십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좋은 좌석에서 오페라 전곡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큰 미덕이다. 김 대표는 "제작사가 다양한 작품을 자주 무대에 올릴 수 있게 되고, 결국 오페라 전반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지휘자 역시 "오페라 콘체르탄테는 더 큰 예술(오페라)로 나아가기 위한 쇼케이스 역할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악가들이 구체적인 연기 없이 한 자리에서 노래만 부르는 형태이다 보니 음악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성악가 개개인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 '탄호이저'의 주역 테너 이범주는 "노래 가사에 담긴 세밀한 감정을 얼굴 표정과 목소리로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고충을 털어놨다.